

국립국어원 소식

1. 국립국어원 말다듬기위원회, 다듬은 말 선정

- 피오피(P.O.P.: Point Of Purchase Advertising)의 다듬은 말: 매장 광고
- 콘시어지(concierge)의 다듬은 말: 총괄 안내(인)
- 클리어런스 세일(clearance sale)의 다듬은 말: 재고 할인 (판매)
- 구즈/굿즈(goods)의 다듬은 말: 팬 상품
- 바이백 (서비스)[buyback (service)]의 다듬은 말: (도서) 되사기
- 이북(e-book: electronic book)의 다듬은 말: 전자책

‘피오피(P.O.P.: Point Of Purchase Advertising)’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는 가게 앞쪽, 가게 내부 등에 직접 게시되는 광고를 말한다. 이를 ‘매장 광고’로 다듬었다. ‘콘시어지(concierge)’는 호텔에서 호텔 안내는 물론, 여행과 쇼핑까지 투숙객의 다양한 요구를 들어주는 서비스를 가리킨다. 이를 ‘총괄 안내(인)’로 다듬었다. ‘클리어런스 세일(clearance sale)’은 재고 정리를 위한 판매를 뜻한다. 이를 ‘재고 할인 (판매)’으로 다듬었다. ‘구즈/굿즈(goods)’는 연예인 또는 만화 영화 등 특정 대상을 기념하는 파생 상품이다. 이를 ‘팬 상품’으로 다듬었다. ‘바이백 (서비스)[buyback (service)]’은 다 읽은 도서를 반납하면 정가 대비 최대 절반 가격의 예치금을 되돌려 받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도서) 되사기’로 다듬었다. ‘이북(e-book: electronic book)’은 컴퓨터, 이동용 기기 등의 화면에서 종이 대신 디지털 파일로 글을 읽을 수 있게 만든 전자 매체형 책을 이르는 말이다. 이를 ‘전자책’으로 다듬었다.

이번에 다듬은 말들은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 우리 가게는 이번에 새로 설치한 매장 광고(←피오피)로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었다.
- 백화점과 호텔에서 실시되는 총괄 안내(←콘시어지) 서비스가 고객들의 이용 만족도를 높였다.
 - ※ 총괄 안내인(←콘시어지)이 이번 투숙 기간에도 친절히 안내를 해주어서 고맙았다.
- 알뜰족들은 재고 할인 판매(←클리어런스 세일) 기간을 이용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추천한다.
 - ※ ○○백화점은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딱 3일만 재고 할인(←클리어런스 세일)을 실시한다.
- 지난번 ○○ 만화 영화의 개봉일에 다양한 팬 상품(←구즈/굿즈)도 소개되어 많은 인기를 끌었다.
- 중고 서적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도서 되사기(←바이백 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 ※ 도서류가 아닐 때에도 ‘되사기(←바이백 서비스)’를 다듬은 말로 활용할 수 있다.
 - 예) ○○자동차는 중고차값을 보장해 주는 되사기(←바이백 서비스) 행사를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한다.
- 전자책(←이북(e-book)) 보급이 늘어나면서, 언제 어디서나 책 읽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2.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 예정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나서다

- 국립국어원, 청년 한국어 예비 교원(실습 교과목을 이수하고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을 앞둔 청년)의 국외 현장(재외 동포 교육 기관·한글학교) 경험 확대와 초기 경력 축적 기회 제공을 통해 국내외 한국어 교육 기관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 실시
- 청년 한국어 예비 교원 파견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한글학교 교사의 역량 강화, 재외 동포 대상 맞춤형 교육 자료 개발을 위해 재외동포재단과 업무 협약 체결 예정

국립국어원은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 예정인 청년들의 국외 현장 경험 확대, 초기 경력 축적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청년들의 한국어 교육 기관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한국어 예비 교원 국외 파견·실습 지원 사업의 첫발을 내디뎠다.

대한민국 국적의 청년 60명을 선발, 국외 재외 동포 교육 기관인 한글학교에 파견하여 현장 실습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2017년 6월~7월(일본 나고야·도쿄, 총 20명), 9월~10월(카자흐스탄 알마티, 러시아 사할린 각 20명)에 나누어 시행한다.

일본 도쿄·나고야 참가자 모집은 2017년 4월 21일(금)에 종료되었고 카자흐스탄 알마티, 러시아 사할린 참가자 모집은 2017년 7월 21일(금)까지 이루어진다. 지원 자격은 한국어교육전공 학사 또는 석사 과정 재학생(휴학생 포함) 중 실습 교과목 이수자와 이수 예정인 만 40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의 청년 예비 교원으로 제한된다. 참가자 범위는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양질의 국외 한국어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수한 한국어 교원 양성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국립국어원은 다변화하는 세계 시장에 대응하고

한국어 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교원 양성을 위해 ‘한국어 예비 교원 파견·실습 지원’ 사업을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파견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국립국어원은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주철기)과 2017년 7월에 재외 동포 교육 지원 및 국외 한국어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3. 국립국어원, 수형으로 찾아보는 ‘한국수어사전’ 서비스 개시

국립국어원의 ‘한국수어사전(<http://sldict.korean.go.kr>)’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수어 중심의 검색 기능 개선과 사용자 참여 확대로 새 단장을 하였다. 작년에 개통한 한국수어사전은 한국어로 원하는 단어를 찾아보는 방식만 가능했다. 이러한 한국어 중심의 검색 방식으로는 의미를 모르는 수어를 찾을 방법이 없어 이용자들이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수어사전 검색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수어의 ‘수형(손 모양)’으로 검색할 수 있는 조건을 추가하였고 이제 ‘한국어 찾기’와 ‘수형으로 찾기’ 두 가지 방식으로 사전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동영상으로 의견을 보내는 기능을 추가하여 농인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다.

보이는 언어, 수어를 위한 사전

문자로 표현되는 음성 언어 사전에서는 ‘가나다’나 ‘에이비시(ABC)’ 순서로 단어가 배열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다. 그러나 손을 사용하여 소통하는, ‘보이는 언어’인 수어는 이러한 배열 방식이 불가능하고 언어적 특징에도 맞지 않다. 그러므로 그 특성에 맞게 사전을 찾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한국수어사전에서는 개별 수어의 형태와 움직임을 분석하여 ‘① 손 모양, ② 손 위치, ③ 한 손/두 손, ④ 같은 모양/다른 모양’ 네 가지 선택 조건을 조합하여 원하는 단어를 찾을 수 있도록 검색 방식을 추가하였다.

농인과 함께 만드는 사전

그동안 한국수어사전은 실제 농인들이 사용하는 어휘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번 개편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사전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의견 보내기’ 기능을

추가하였다. 이 기능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들이 사전의 오류나 개선점 등 다양한 의견을 동영상으로 직접 보낼 수 있게 되었다. 농인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보내고 참여할수록 ‘한국수어사전’은 살아 있는 수어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을 것이다.

살아 있는 수어의 보고(寶庫)로 끊임없이 변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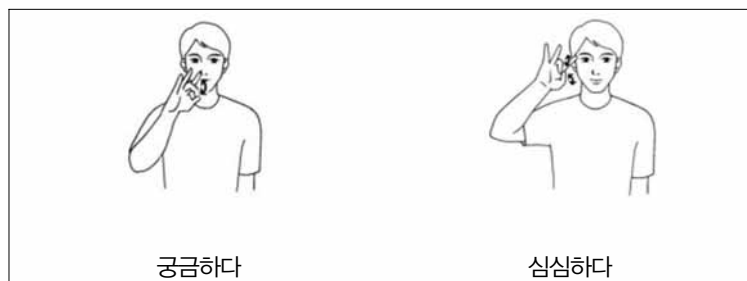
아울러, 국립국어원은 올해 사전 올림말의 뜻풀이와 어휘의 다양한 용법을 수어로 제시하여 사전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얼굴(표정), 입 모양 등 한국수어의 중요한 요소를 함께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사전을 기획하고 있다.

앞으로 만들어질 사전에는 2005년 이후에 생긴 신어와 어휘의 변이형도 수록하는 등 한국수어의 실재를 담고자 한다. 또한 현재의 한국어-한국수어 대조 어휘집 차원을 넘어서서 한국수어-한국어 이중 언어 사전으로 진정한 한국수어 중심의 사전이 되도록 구축할 예정이다.

[그림 1] 한국수어사전 ‘수형으로 찾기’ 화면



[그림 2] 손 모양(수형)은 같지만 손 위치(수위)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수어의 예



[그림 3] 한국수어사전 '의견 보내기' 화면



4. '2017년 나만의 국어사전 뜻풀이 공모' 개최

국립국어원은 국어사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2017년 나만의 국어사전 뜻풀이 공모'를 개최한다. 올해로 제3회를 맞은 이 행사는 자기만의 개성을 담은 낱말 뜻풀이를 직접 해 봄으로써 우리말과 국어사전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고, 일상생활에서 국어사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2017년 나만의 국어사전 뜻풀이 공모

- 공모 부문: 창의적 뜻풀이(제시 낱말 10개 중 5개 이상 뜻풀이)
※ 제시 낱말: 거울, 사투리, 알콩달콩, 앙증맞다, 어울림, 잔치, 사전, 새롭다, 보람, 열다
- 응모 기간: 2017년 8월 1일(화)~8월 15일(화)
- 시상식: 2017년 10월 9일(월)
- 수상작 전시회: 2017년 10월 8일~9일/2017 한글문화큰잔치
- '2017년 나만의 국어사전 뜻풀이 공모' 누리집
(http://www.korean.go.kr/front/board/boardStandardView.do?board_id=4&b_seq=1960&mn_id=17)

창의적 뜻풀이로 되살아나는 국어사전

'2017년 나만의 국어사전 뜻풀이 공모'는 '오늘날 국어사전이 지니는 의미'를 주제로 삼았다. 뜻풀이 공모 주제를 이렇게 정한 까닭은 민족정신의 정수인 한글학회의 《큰사전》 완간 60주년과 국민의 참여로 진화하는 신개념 국어사전 《우리말샘》 개통 1주년을 기념하여, 《큰사전》에서 《우리말샘》까지의 변화와 그 의미를 담아 보기 위해서이다.

이번 주제에 어울리는 뜻풀이 제시 낱말 10개는 우리말을 사랑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기관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였다. 1957년 민족정신을 담은 《큰

사전》을 열고, 2016년 국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새로운 국어사전 《우리말 샘》을 시작했다. 사전은 지식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비춰 주는 거울이며, 모든 고장의 사투리가 알콩달콩 서로를 보듬으며 어울리는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기도 하므로, 개성 있는, 때로는 양증맞은 뜻풀이로 나만의 국어사전을 보람차게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10개의 낱말을 선정하였다.

낱말의 추천에는 겨례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이사장 고은), 한글학회(회장 권재일), 한국문인협회(이사장 문효치), 한국어문기자협회(회장 이승훈),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공동 대표 서혁), 전국국어교사모임(이사장 고용우),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가 참여하였다.

낱말 뜻풀이에 관심 있는 누구나 응모 가능

공모에는 개인이나 단체, 외국인 등 우리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응모작 접수는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이다. 심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위원회(시인, 기자, 국어국문학 교수, 국어 교사, 국어 단체 활동가 등)를 구성하여 진행하며,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4점, 장려상 8점, 단체상 3점 등 총 18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시상식은 10월 9일 한글날에 열리며, 수상작 전시회는 ‘2017 한글문화큰잔치’의 일부로 진행될 ‘2017년 나만의 국어사전 뜻풀이 공모 수상작 전시회’로 개최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안내되어 있다.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

국립국어원장은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強力)은 남의 침범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나의 소원》 중)라는 백범 김구 선생의 문구를 인용하며, 《큰사전》에서 《우리말샘》까지의 모든 국어사전이 우리 문화를 함양하는 터전이 되어 왔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2017년 나만의 국어사전 뜻풀이 공모’가 낱말의 폭넓은 의미와 다양한 쓰임을 되새겨서 우리말의 가치를 깨닫는 기회가 되고, 나아가 일상생활에서 점점 잊혀가는 국어사전을 되살려 우리 문화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5. 한국어 교육 전문화를 선도하는 국외 한국어 교원 대상 초청 연수회 개최



국립국어원과 이화여자대학교(총장 김혜숙)는 2017년 6월 19일부터 8월 25일까지 약 10주 동안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총 13개국 15명의 국외 외국인 한국어 전문가를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회는 과거와 다르게 연수 기간을 기존 2주에서 10주로 대폭 늘렸다는 데에 큰 특징이 있다. 과거의 연수 참여자들은 짧은 연수 시간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표현하였다. 이에 국립국어원은 초청자 수를 줄이는 대신 연수 기간을 대폭 늘려 국외 한국어 교원들의 연구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전문화된 연수회를 설계하였다.

전문성을 강화한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 연수

이번 연수회에서는 연수 기간 내에 전문적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참가자들이 제출한 연구 계획서를 바탕으로 구성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첫 4주 동안은 초청자들의 연구 주제에 맞는 전문가 강연, 분임 활동, 문화

활동을 실시한다. 이후 3주 동안은 교수법 강화를 위한 수업 참관, 연구 주제와 관련한 세미나 활동을 병행한다. 마지막으로 남은 3주 동안에는 연구 결과 발표회에서 발표할 결과물 작성과 연구 결과물 작성 지도 활동을 국립국어원에서 진행한다. 이와 같이 전문성을 강화한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연수 참가자들은 연구 성과를 거둬와 동시에 한국어 교육 전문화와 관련한 정보·교류망을 넓히게 된다.

뿌리 깊은 나무, 흔들리지 않는 한국어 세계화를 위해

국립국어원은 한국어 교육 전문 기관으로 한국어 세계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현재에도 한국어 교육 기초 연구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재 개발, 한국어 교원 자격증 관리까지 한국어 교육 발전을 위해 여러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한국어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우수한 한국어 교원 양성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1991년 개원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매년 한국어 교원 연수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16년까지 국립국어원의 초청 연수 사업은 한국어 교원 간 인적 교류의 활성화, 기본적인 교수 역량 강화 등에 그 목적을 두었다. 올해 국립국어원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국외 교육 현장에 한국어라는 뿌리가 더욱 깊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 중심적 역할을 하는 국외 한국어 교원의 전문화를 이끄는 연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으로 진행되는 연수회 기간 동안 국립국어원은 초청된 국외 한국어 교원들이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여 한국어 교육 전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도울 것이다. 아울러 한국어 세계화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국외 한국어 교원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재교육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6. 한국어 교육의 과학화를 위한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 시범 운영 실시

국립국어원은 한국어 교육의 과학화를 위해 구축 중인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자료를 나누고자 2017년 6월 16일(금)부터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http://kcorpus.korean.go.kr>)’ 누리집 시범 운영을 시작하였다.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연구 사업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약 300만 어절 규모 이상의 구축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이번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 누리집 시범 운영 기간에는 2016년까지 구축한 100만 어절 자료가 검색 대상 자료로 제공된다.

앞으로 국립국어원은 시범 운영 후 누리집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양질의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7. 캄보디아 왕립프놈펜대학교(RUPP) 한국어학과 교수진 방문

캄보디아 최고의 국립 대학교인 왕립프놈펜대학교(수도 프놈펜에 위치)의 한국어학과 교수진이 국립국어원을 방문하였다. 왕립프놈펜대학교 교수진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2013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캄보디아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역량 강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한국을 방문하였다.

- 일시/장소: 2017. 4. 25.(화)/국립국어원 원장실 부속 회의실
- 방문자: 오옴 포니카(캄보디아 왕립프놈펜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학과장), 촌 마디나(캄보디아 왕립프놈펜대학교 한국어학과 강사), 엘 찬스레이몸(캄보디아 왕립프놈펜대학교 한국어학과 강사), 이해영(이화여자대학교 한국학과 교수), 오아림(이화여자대학교 한국학과 박사 과정), 벳 나비(이화여자대학교 한국학과 석사 과정)

8.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임원진 방문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임원진이 국립국어원을 방문하여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집중 연수회 지원 사업 및 재외 동포 아동용 교재 개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일시/장소: 2017. 5. 24.(수)/국립국어원 원장실
- 방문자: 이승민(재미한국학교협의회 회장), 김미경(재미한국학교협의회 재무), 김윤희(재미한국학교협의회 편집장)

9. 2017년 하반기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과정 운영 계획

가. 교육 개요

- 내용: 어문 규범, 공문서 바로 쓰기, 우리말 다듬기 등 국어 관련 과목
20강좌 35시간
- 대상: 공무원/일반인
- 장소: 국립국어원
- 기간: 5일간(월~금), 비합숙

나. 교육 일정(2017년 하반기)

- 9월 1기(제355기): 2017. 9. 4.(월)~9. 8.(금)
- 9월 2기(제356기): 2017. 9. 11.(월)~9. 15.(금)
- 10월 1기(제357기): 2017. 10. 16.(월)~10. 20.(금)
- 10월 2기(제358기): 2017. 10. 23.(월)~10. 27.(금)
- 11월 1기(제359기): 2017. 11. 13.(월)~11. 17.(금)
- 11월 2기(제360기): 2017. 11. 20.(월)~11. 24.(금)

다. 수료생에게는 교육 훈련 점수(선택 전문 교육 훈련 과정, 35시간) 부여

라. 교육비(수강료): 100,000원(식비 20,000원 별도)/※ 일반인은 수강료 무료

마. 연락처: 02-2669-9662, 9729, 9752(전송: 02-2669-9747)

10. 원내 직장 교육 실시 현황

직장 교육 내용	교육 일시
국정 과제 교육, 개인 정보 보호 교육 등	2017. 3. 28.(화)
적극 행정 및 민원 응대 교육, 반부패·청렴 교육 등	2017. 4. 13.(목)
4대 폭력 예방 교육, 소방 및 4차 산업 혁명 교육 등	2017. 6. 27.(화)

11. 위원회 개최 현황

위원회 명단	회의 개최일
한국수어교원자격심의위원회	2017. 4. 13.(목)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2017. 4. 26.(수) 2017. 6. 16.(금)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7. 4. 7.(금) 2017. 4. 14.(금) 2017. 4. 21.(금) 2017. 5. 12.(금) 2017. 5. 19.(금) 2017. 5. 26.(금) 2017. 6. 2.(금) 2017. 6. 9.(금) 2017. 6. 23.(금) 2017. 6. 30.(금)
《표준국어대사전》 정보보완심의위원회	2017. 5. 30.(화)
우리말다듬기위원회	2017. 6. 21.(수)
국어규범정비위원회	2017. 6. 27.(화)

12. 인사이동

12.1. 신규 임용

- 김혜민(한시임기제6호): 한국어진흥과(2017년 5월 30일~2018년 11월 29일)

12.2. 전보

- 채영주(행정주사): 기획연수와 → 국립중앙도서관(6월 29일)

12.3. 시보 해제

- 김미현: 학예연구사 시보 → 학예연구사(6월 27일)
- 남미정: 학예연구사 시보 → 학예연구사(6월 27일)
- 박 선: 학예연구사 시보 → 학예연구사(6월 27일)
- 이슬비: 학예연구사 시보 → 학예연구사(6월 27일)

12.4.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

- 이진희(행정주사보): 시간선택제 근무를 명함(6월 1일~12월 31일)

12.5. 지원 근무 해제

- 유은숙(행정주사보): 기획운영과 지원 근무를 면함(4월 3일)

12.6. 휴직

- 이슬비(학예연구사): 출산 휴가(5월 30일~8월 27일)
- 이슬비(학예연구사): 육아 휴직(2017년 8월 28일~2019년 3월 27일)

